

미소 되찾아 주는 세라믹 심미 보철

치아 깎아내고 세라믹 관 입혀
이 단시간에 하얗고 깨끗하게

앞니가 고르지 않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일단 교정 치료를 생각한다. 그러나 교정치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입안에 장치를 끼워야 할 뿐만 아니라 치아 원래의 색깔을 예쁘게 바꿀 수 없어 환자 분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최근에 치과용 세라믹이 놀랍도록 발달돼 이러한 경우에 '라미네이트(laminate)'나 '전부 세라믹 크라운(all ceramic crown)' 등으로 우리 치아와 매우 유사한 세라믹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

먼저 '라미네이트'는 보이는 치아면을 0.3~0.5mm 정도만 얇게 깎아내고 손톱 같이 얇은 세라믹 판 모양의 보철물을 치과용 접착제로 붙인다. '라미네이트'는 매우 얇아서 치아를 최소로 깎기 때문에 보통 마취 주사도 맞지 않고 치료 시간이 적게 걸리며, 무엇보다도 색상과 모양이 우리 치아와 매우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니 사이 공간이 더 많이 벌어져 있거나 심하게 벌어져 있을 때, 다치거나 부딪혀서 많이 깨져버렸을 때, 이미 보철물이 있는 경우에는 치아 전체를 깎아내고 씌우는 '전부 세라믹 크라운'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전에 금속이 들어간 보철물을 한 경우에는 잇몸 부위가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전부 세라믹 크라운'은 금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없어 훨씬 자연스럽고 예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 세라믹이 금속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세라믹 보철물이 깨질 위험성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우려를 덜어주는 고강도의 '지르코니아 세라믹'

이라는 재료가 개발돼 단단한 음식을 씹는 어금니에도 '전부 세라믹 크라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잇몸이나 치아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술 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잇몸치료와 충치치료를 한 뒤 '라미네이트'나 '전부 세라믹 크라운'과 같은 보철치료를 해야 한다. 또한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라미네이트'를 치료 받은 경우에는 가급적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앞니로 베어 무는 습관은 없어야 한다. 칫솔질 후에는 치실이나 칫솔 등을 사용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을 제거하며 구강 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부 세라믹 크라운'뿐만 아니라 '라미네이트'도 치아를 깎아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한 번 치아를 깎게 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일부 상업적인 치과에서 연예인들을 앞세워 지나치게 현혹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교정치료를 통해 최대한 치아 본연의 형태를 살리고, 치아 미백을 통해 치아 색깔을 예쁘게 한 후에 필요한 치아에 '라미네이트'나 '전부 세라믹 크라운'을 이용한다면 더욱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남대치과병원 보철과 임현필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MRI 검진 원하는 시간에 저렴하게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장비 도입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가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최신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학병원급에서 사용하는 MRI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보통 MRI를 촬영하려면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2~3일의 대기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할 경우 검사를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날짜·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접수시 바로 검사가 가능해 시간단축과 신속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용도 대학병원의 6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다.

물론 MRI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나올 경우 협약진료기관(대학병원 또는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치료를 연계해 준다.

MRI 검사를 받아봐야 할 증상으로는 ▲머리가 무겁고 심한 두통이 동반하는 경우 ▲손발의 저림증상 ▲근육 및 허리의 통증(대퇴부 및 종아리) ▲뇌출혈, 뇌경색이 의심되는 경우 ▲관절 및 척추부위의 통증이 지속될 경우 ▲충격에 의한 관절 인대파손이 의심될 경우 ▲암 등 가족력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한 뼈 관절의 충격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일보·조선대병원 공동기획
암 아는만큼 이긴다

<7> 방사선 치료

똑똑해진 장비, 치유율 높이고 부작용 줄여

암 치료에는 크게 수술·항암제·방사선 치료가 이용되고 이외에 면역요법, 유전자요법, 대체요법이 이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단독 암 치료가 많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병행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방사선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서양의 경우 암환자의 약 50%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사선치료 이용이 증가하면서 약 30~40% 암환자가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방사선치료는 일종의 방사선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으로 암세포의 핵을 공격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방법으로 방사선을 만들어서 방출하는 장비가 필요하다.

◇최첨단장비로 장기손상 적어=방사선 치료하면 일반적으로 매우 두렵고 견디기 힘든 치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방사선치료는 입원하지 않고 외래 방문으로 치료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것은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환자가 치료받으면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 직장 다니면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다. 방사선치료는 뜨겁거나 아픈 느낌이 없고 수술에 비해 장기손상이 적어 장기 교류의 모양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기성대암의 경우 수술하게 되면 목소리를 잃게 되지만 방사선치료를 받게 되면 자신의 목소리를 유지하게 된다.

하부직장암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항문을 막고 복부에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했지만 최근에는 수술전 항암제와 방사선치료를 하여 암을 줄인 다음 수술을 하게 되면 항문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최첨단 치료 장비가 도입되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양의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다.

방사선치료는 거의 모든 암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폐암·유방암·비인강암·후두암·비인강암과 같은 두경부암, 직장암·항문암과 같은 소화기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그리고 다양한 전이암에서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완치 목적의 방사선 치료가 이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암환자의 약 40%는 뇌 혹은 뼈에 전이되거나 암종증 등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방사선치료를 받게 된다.

◇질병에 따라 치료방법 선택=방사선치료방법에는 크게 원격 방사선치료와 근접



장지영 조선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40대 암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장기손상 없고 치료 받으며 일상생활 가능
전이 암 완화 치료 1~3주·완치 5~8주

방사선치료가 있다. 원격방사선치료는 환자와 방사선이 나오는 중심사이에 일정거리리를 두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사선치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근접방사선 치료는 치료하고자 하는 암에 인접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선동위원소를 삽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수술하지 않은 자궁경부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기 전립선암에도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방사선치료는 모의치료과정을 통해 환자의 자세, 치료부위, 방사선량, 치료기간 등을 정하게 된다. 모의치료용 전산화 단층촬영(CT)을 통해 얻은 영상을 이용해 치료할 암의 위치와 방사선이 들어가야 할 치료할 주요 정상조직을 그려보고 가장 치료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치료계획을 선택하게 된다. 모의치료과정은 약 20~40분정도 소요되고 환자는 모의치료용 CT촬영만 하면 준비는 끝나게 된다.

치료계획은 치료부위와 치료방법 등에 따라 수 시간에서 수 일이 걸릴 수도 있다. 치료계획과정은 모의치료과정에서 얻은 영상과 환자의 진료자료를 이용하여 방사

선종양학과 전문의와 의학물리사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진다. 치료계획이 완료되면 환자는 내원하여 방사선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총 치료기간은 치료목적, 치료부위, 치료방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전이된 암의 경우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기간은 1~3주간의 단기간 치료를 하게 되고 완치목적의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약 5~8주가 걸린다.

◇세기조절치료 등 부작용 적은 시술 다양해=방사선치료는 수술, 항암제 치료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방사선치료는 전신이 아닌 국소적인 부위에 방사선이 들어가는 치료로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치료가 들어가는 부위에 국한되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복부나 골반에 있는 암을 치료할 때 머리가 빠지지 않으며 목을 치료할 때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의 암치료로 인한 급성부작용치료 권고에서도 언급하듯이 해당 부위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과 달리 대부분 주사가 아닌 약물치료나 관찰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작용을 줄이면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방사선치료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최첨단 치료로 삼차원 입체조형치료, 세기조절방사선치료, 방사선수술, 양성자치료 등이 있다. 삼차원입체조형치료는 최첨단치료이면서 보편화된 치료가 되었다. 세기조절방사선치료는 최근에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는 치료방법으로 삼차원입체조형치료보다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모테라피, 사이버 나이프 등이 대표적인 세기조절방사선 치료 장비이다.

모든 암환자에게 최첨단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치료목적, 암의 위치, 암의 진행정도, 다른 치료와 병행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또한 고가의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지만 암을 진단받았다고 절망하는 시대는 지났다.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완치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방사선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치료의 병행으로 장기를 보존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장지영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Inmyom' (인미옴) featuring a table of products and prices, contact information (525-8880, 010-8840-3990), and a list of distributors.

Advertisement for 'Hyundai Public Introduction' (현대공인중개사) listing services for real estate, business, and legal matters, with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Gwangju Inmyom' (광주인미옴)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a man and a list of products, including 'Inmyom' and 'Inmyom Plus'.